

기능노출후 골 유착성 임플란트 변연골 소실에 관한 방사선학적 연구

박기현, 한동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저작기능노출이 골유착성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1991년 6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보철치료를 시행한 환자중 누락된 측정값이 없는 46개의 임플란트에서 정기적으로 촬영된 구내 방사선 사진으로 디지털 방법을 이용하여 보철물 장착 후 5년동안 1년간격으로 변연골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1. 보철물 장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1년후에는 1.821 mm, 2년후 1.833 mm, 3년후 1.892 mm, 4년후 1.910 mm, 5년후 1.957 mm의 골소실을 보였다. ($P < 0.05$)
2. 상하악간 골소실량 비교에서 1년후 상악은 1.832mm 하악은 1.819mm 를 보였으나 통계적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3. 남녀간 골소실량비교에서 1년후 남자는 1.824mm 여자는 1.818mm 의 골소실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위 결과로 임플란트 주위의 변연골 소실은 보철물 장착후 1년간 급격하게 진행되고 그후 5년간 임플란트의 첫 번째 나사(thread)부위에서 안정됨을 보여 우리나라 환자에게서도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보철술식으로 인공치아이식술이 이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